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 2016.1.3.(다해) 제1979호



왜관 가실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1-12 참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현’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야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과연 그분을 알아보고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1독서 이사 60,1-6

제2독서 에페 3,2,3ㄴ,5-6

복음 마태 2,1-12.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일어나 비추어라

김용범 그레고리오 신부 | 산내본당 주임

공헌 대축일의 의미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세상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이루어짐을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처음으로 찾아와 경배한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느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의 말씀대로 암흑에 싸여 있는 민족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빛이 비추어진 사건으로 에페소서 3장 6절이 전하듯이 이방인들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동방박사의 예방이야기는 이제는 예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하느님의 백성일 수 없고 오직 그분을 받아들인 소수 유대인들과 다수 이방인들로 이제는 하느님의 참 백성임을 선언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하느님 약속에 대한 공동 수혜자가 된 우리의 신앙적 삶에 관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별이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였듯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 6)

오늘날 교회는, 그 구성원인 우리 각자는 과연 그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듯,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압박을 이겨내고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착한 행실로 드러낼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쉬운 길을 택하며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총의 에너지를 통해 하느님 자녀다운 덕을 풍기며 살아야 하는데, 많은 이들은 외적인 활동들로 대처하며 살려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피정(꾸르실로, 성령세미나, ME, 레지오 교육 등)을 많이 이수함으로써, 레지오 활동과 봉사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좋은 특강을 많이 듣거나 특정 성지를 자주 방문함으로써 마치 내가 성화된 듯 여기고 내 역할을 다하는 냥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현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느님을 열망할 것인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하느님을 비추는 작은 별이 되리라’ 우리 각자를 새로이 봉헌하며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4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십시오

1. 하느님께서서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 인류는 소중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류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면서 평화를 이룩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인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2. 저는 자비의 희년에 교회의 기도와 노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고 연민이 넘치는 마음을 길러 자비를 선포하고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현실을 인식하여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3. 오늘날 무관심은 개인의 차원을 확실히 넘어선 세계적인 차원의 것이 되어 '무관심의 세계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인간 사회 안의 무관심의 첫째 형태는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여기에서 이웃과 피조물에 대한 무관심도 파생됩니다. 무관심은 무엇보다도 자폐와 냉담을 야기하여 결국 [인간은] 하느님과 타인과 피조물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4.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은 개인의 사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잊고 부인하면 자기 자신 이외의 그 어떤 기준도 인정하지 않도록 오도되어 엄청난 잔학과 폭력이 야기됩니다.

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다른 이들, 곧 이방인들, 병든 이들, 갇힌 이들, 노숙자들, 심지어 원수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느님 심판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돌로 된 우리 마음을 살로 된 마음으로 바꾸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에제 36,26 참조).

6. 도덕적 선이며 사회적 태도인 연대는 개인적 회개의 열매로 교육과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문화계 종사자들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정보의 습득과 확산 방법이 늘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것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무관심의 세계화의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위에 언급된 상황에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연민과 자비와 연대를 증언하는 많은 긍정적인 노력과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흡족해질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마태 5,6-9 참조).

8. 자비의 희년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안에서 무관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국가들도 구체적인 실천을 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죄수, 이민, 실업자, 병자와 같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하여 용기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인사와 더불어 저는 이러한 성찰을, 인류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드리며, 평화의 임금이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제애와 연대를 이루는 세상을 위하여 나날이 노력하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티칸에서, 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자비의 특별 희년 개막일
프란치스코

카푸치노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유래되거나 관련된 문화들을 일상 안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술, 음식, 언어, 기념일 등에 이르기까지 이미 알려진 이야기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올해 대구주보에서는 매월 한 편씩 교회에서 비롯된 일상 문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거리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전문점일 정도로 커피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유래된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카푸치노입니다. 진한 갈색의 커피 위에 우유거품을 얹어 계피가루를 살짝 뿌린 카푸치노의 명칭은 프란치스코회 라고도 불리는 작은형제회의 한 분파인 카푸친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푸친회의 수도자들은 청빈의 상징으로 모자가 달린 수도복을 입는데 카푸치오(cappucio)라 불리는 그 모자와 거품의 모습이 닮았다하여 카푸치노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고 카푸치노의 갈색빛이 카푸친회 수도복의 색과 비슷하다고 하여 카푸치노로 불리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전설에서는 카푸친작은형제회의 사제이신 복자 마르코 아비아노(1631~1699)가 직접 카푸치노를 발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693년 빈이 오스만 터키군에 포위돼 전투를 치를 당시 복자께서는 하느님 말씀이 흠뻑 담긴 카푸친회 특유의 강론으로 신성연맹을 일치단결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전장에서 터키군이 남기고 달아난 쓴맛의 진한 커피에 따뜻한 우유와 꿀을 타서 마셨다는 사실에서 기인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복자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커피의 발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빈에서 터키군을 물리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아낸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카푸치노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르코 복자를 커피의 창안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제로서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문**



햇볕 한 줌

사랑받은 기억

1865년 어느 겨울밤, 한 여인이 태어난지 20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안고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주변을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길을 잃은 여인은 사력을 다해 도움을 외쳤지만 여인의 함성은 강한 바람과 하얗게 내려 앉은 눈발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눈보라는 그치고 언덕을 넘던 한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얼어 죽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아기에게 자신의 겂옷을 맡아 감싸 안은 채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겂옷을 벗기자 갓난아기가 몸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 추위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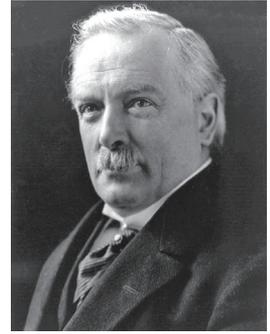
숨을 잃었지만, 아이는 살린 것입니다.

이 아이는 훗날 영국의 53대 수상이 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1863~1945)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들으며 자랐

고 자신을 위해 생명을 버린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기억을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수많은 인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건 없는 희생과 넘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필문**



예수님의 이름은?

재미있는 교회 상식

예수님의 부르는 칭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그리스도_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 메시아_ 히브리어 ‘마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위의 그리스도와 같은 뜻.
- 랍비_ ‘선생님.’
- 성자_ 하느님의 아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제2위를 가리키는 칭호.
- 임마누엘_ 히브리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

이 밖에도 예수님의 상징적 표현으로

- 알파(A) 오메가(Ω)_ 희랍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요한 묵시록 22,13)
- 물고기_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아들, 구세주’라는 희랍어의 첫 글자들을 따서 ‘익투스’(ΙΧΘΥΣ), 즉 물고기라는 글자로 표현, 예수는 예수스 Ι,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Χ, 하느님은 테오스 Θ, 아들은 휘오스 Υ, 구세주는 소테르 Σ
- 키, 로_ 희랍어 ‘그리스도’의 처음 두 글자(Κ, Χ)
- INRI_ 라틴어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의 첫 글자들, I : 예수스(예수), N : 나자레누스(나자렛), R : 렉스(왕), I : 유데오룸(유대인) **필문**

교구장 동정

■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2015년 12월 24일(목) 오후 8시 김천 울곡성당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대주교님께서는 2015년 12월 25일(금) 오전 11시 계산 주교좌성당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봉헌하셨다.

개편 안내

1면	교구 내 성지 사진
3면	강영목 신부님의 가정은 희망의 공장 자비의 현장_생명사랑나눔 연중 캠페인 신종호 신부님의 사회 교리(환경 편) 임석환 신부님의 학교 밖 아이들
4면	복음의 눈으로 문화읽기, 사목단상 김종헌 신부님의 눈으로 듣는 성음악 묵상 백미혜 교수님의 가슴으로 보는 성화 묵상 교회에서 비롯된 일상 문화
5면	햇별 한 줌, 재미있는 교회상식, 열두사도 이야기, 교황님 이야기

교구 행사

- 1.3(일) _ YHY 청소년 봉사 동아리 '반하나' 월모임 (15시, 성토마스 청소년 시범본당)
- 1.4(일) _ 교구청 시무미사(9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 꾸르실로 신년교례회(19시 30분)
- 1.5(화) _ 원로사제후원회 신년회(11시)
- 1.7(목) _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봉사자 신년 총회(10시 30분, 가정사목담당 사무실)
- 1.9(토) _ 평신도 위원회, 평단협 신년모임(12시)
성요셉 아버지학교 봉사자 신년 총회(15시, 가정사목담당 사무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4일(월) 11:00 월성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1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월 4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6일(수) 11:30 계산성당

성소 | 피정

고등학생을 위한 예수회 성소 피정

기간: 1.29(금)~31(일)

장소: 예수회센터(서강대 옆)

대상: 남자 고등학생(예비 고1 포함)

문의: 김우중 수사, (010)6245-1608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입문 피정

기간: 1.27(수)~31(일)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집

인원: 50명(1인 1실) / 29만 원

지도: 허성준(가브리엘) 신부(OSB)

문의: 왜관수도원, (010)5399-0669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피정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평화,

성지 순례, 올레길, 오름 트레킹, 역사탐방

기간: 1.16~18 / 1.22~24 / 2.21~23

2.27~29 / 3.13~15 / 3.19~21

문의: 제주 면형의집, (02)773-1463

제주도 성이시들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1.22~24 / 1.26~29 / 2.12~15

2.17~20 / 2.25~27 / 3.4~7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들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2016학년도 전기 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 교육, 특수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 1.5(화)~12(화)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660-5511(특수)

참조: <http://www.cu.ac.kr>(모집요강)

2016 대구맨발가르멜재속회원 모집

모집: 1월 중, 만 50세 이하

첫째주 주일탐: (010)2686-3282

첫째주 월요일탐: (010)5590-2473

넷째주 주일탐: (010)2518-4008

넷째주 월요일탐: (010)8594-2655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5차원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1.25~27(43차) / 2.24~26(44차)

장소: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대상: 초·중·고·대생(선착순 30명)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 28만 원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1.29(금) 17:30~31(일)

4박 5일: 1.9(토) 14:00~13(수)

이나시오: 1.29(금) 17:30~31(일)

문의: (031)946-2337~8

19회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기간: 2차 2.27 / 3차 3.26(8주 이상)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 센터

내용: 주중영어연수, 주말해외봉사활동

기타: 호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여대생기숙사 과달루페집 모집

위치: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중교무관)

주최: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문의: (010)7444-5514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대상: 만 15~26세 남자, 1년(기계가공)

과목: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고검반운영, 인성교육, 교육비기숙비무

료, 수당지급, 방통고편입학지도, 취업알

선, 면접전형 / 문의: (02)828-3600

파티마 성모발현 99주년 기념
성모발현성지순례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출발일: 2016년 4월 25일 (13박 14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우리아이 아플면?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학박사
영 일 아(9) ~ 열 (1) 11
동 일 공(홍) 일 아(9) ~ 열 (9) 11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동부대로 132-1 (119) 119-1199
대구광역시 북구 동부대로 132-1 (119) 119-1199

발아플면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통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너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피부질환 아토피/알레르기/사마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여드름/흉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삼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확장 개원
BF PNT영양치료실/화상,흉터크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크리닉
2F 오프토피스킨케어/여드름크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7호광장 듀류역 2번출구 ☎ 566-4333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까) · 원장 서영미(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행사 | 모임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1.25(월)~27(수)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고3·대학·일반: 1.27(수)~29(금)

장소: 한티피정의집

(참가 학년은 2016학년도 기준, 등록된 예비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 사무실 / 마감: 1.10(일)

교육 | 모집

제4회 YHY해외봉사단 모집

기간: 2.11(목)~19(금) 8박 9일

장소: 필리핀 마닐라일대

경비: 약 175만 원

주관: 교구 청소년국, 250-3037

제6차 비다누에바 연수

기간: 2.12(금)~14(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의 미혼

주최: 교구 청년국

문의: 정혜진, (010)4527-0400

http://cafe.daum.net/daeguvida

가톨릭스카우트 학생(대원) 모집

기간: 1.1(금)~31(일) 특별모집기간

신청: 황창현 사무국장, (010)2810-8661

대상: 초3~중2(남, 여 가능)

참고: 본당계시판 - 스카우트 포스터

다음 카페: 가톨릭스카우트대구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37차 ME주말: 1.8(금) 19:00~10(일)

338차 ME주말: 1.22(금) 19:00~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2016 평신도-수도자 신학석사과정 모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야간)

원서접수: 1.5(화)~12(화)

학위취득: 논문석사 / 교과석사과정

문의: 남산동캠퍼스, 660-5111

가톨릭푸터 자원봉사자 모집

미혼모자들을 위한 사랑나눔 기다립니다

재능기부: 의료, 프로그램 강사 등

노력봉사: 아기돌봄, 환경정리 등

물품후원: 산모신생아용품, 생필품 등

문의: 764-8537~6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지원자격: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 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문의: 859-4063~4 / 마감: 1.14(목)

http://dormitory.cu.ac.kr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새빛학교 신입생 모집 및 교사 채용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접수: 1.11(월)부터

새빛학교 교사 채용

자격: 대졸신자(여성)

문의: 476-3100(1호선 교대역)

성모당 상설고해소 1.4(월)부터 운영

고해시간: 매주 월~금 15:00~16:00

매주 금 19:30~20:30

대구주보 광고 추가 모집

일자: 7.24 / 7.31 / 8.28 / 10.30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보다 세련되고 슬림한 사이즈의

2016년 신앙다이어리 판매

판매가: 10,000원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콜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코리아알트만 대구은행역 뽕네거리
결혼정보회사 1번 출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코리아 알트만 (4F)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랑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졸업/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김성철(비오)
동국대학의학과 외래교수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이타워 4F

골동품·민속품
고가 매입, 문의 환영
문송갤러리 김대운 (요셉)
위치: 건들바위 네거리(우로감정)
☎ (053)474-3050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R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통합의료진총원
전인병원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Hospital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기철(메트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